營과 血에 대한 고찰

엄동명[1,2] · 송지청[1,3] · 정헌영[1,2]*

1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 : 한국전통의학연구소, 3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Review on Nutrient and Blood

Dong Myung Eom[1,2], Ji Chung Song[1,3], Heon Young Jeong[1,2]*

1 :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2 :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3 :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Nutrient and Blood are really common conception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However, those are used in mixed. not only because of their common points but users who doesn't have clear classifications beween them. Therfore, I will explain those owns by explaining origins, places of origons, pathway, circulations, organs related to them and color. In addition, I will try to explain thi things in common without conceptions of their own. As a result, the first, nutrient is what is originated from water and food at middle energizer and circulated in meridian vessel by control of spleen. The second, blood is what is originated from qi of water and food and circulated in blood vessel by control of heart and its color is red. The third, nutrient blood is what is originated from water and food or qi of water and food and circulated in meridian or blood vessel by control of spleen and heart. Also it is red and its function is nourishing human body. The name of Nutrient blood is a new term that I made and it is different from nutrient or blood. Also it is different from nutrient and blood. Nutrient blood is combination by conceptions, nutrient and blood is combination by word itself.

Key words : nutrient, blood, nutrient and blood, water and food, classification, terminology

서 론

우리 醫書에서 營과 血에 대한 槪念과 說明을 살펴보면, 營을 말하면서도 血의 槪念을 이용하여 說明하기도 하고 血을 말하면서도 營의 槪念을 이용하여 說明하기도 하여 兩者의 槪念이 明確하지 않다. 그러나 後代에 溫熱病을 說明할 때에 衛·氣·營·血을 각각 다른 意味로 상정하고 있듯이 營과 血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각각 意味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 각각의 意味를 說明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營과 血의 關係 등을 說明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營, 血 그리고 營血의 槪念 整理가 明確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기존 연구로 元氣, 宗氣, 營氣, 衛氣에 대한 考察[1)]과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的 考察[2)] 그리고 營衛에 對한 考察[3)]이 있기는 하였지만 주로 元氣, 宗氣와 구별되는 營氣 衛氣 槪念을 考察하거나 營氣와 衛氣의 特性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營과 血의 槪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본 論文에서는 『黃帝內經』을 바탕으로 營과 血 관련 문장을 살펴보고, 營과 血의 特性을 把握하여 營과 血, 營血의 槪念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정헌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ku.ac.kr, · Tel : 063-850-6608

· 접수 : 2010/07/27 · 수정 : 2010/08/13 · 채택 : 2010/08/14

본 론

文獻을 통해 營과 血의 特性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營과 血 그리고 營血에 대한 槪念을 說明해 보고자 한다.

1. 營과 血의 由來

營의 由來에 대한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生理學』에서는 『素問·痺論』의 "榮者 水穀之精氣也"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精微한 영양물질 중에서도 그 활성이나 성질이 淸濡(맑고 부드러움)한 것을 營이라 하였으며[4)], 『大學經絡經穴學叢論』에서는 營衛는 水穀에서 生成된 精氣로, 脾에서 傳化하여 肺로 傳해져서 五臟六腑가 이를 받게 되는데, 淸한 것은 營이 되고 …… 淸한 것은 陰에 속하고 그 性質이 精傳

하여 血脈으로 化生하여 經隧之中으로 行하니 이것을 營氣라고 하였다.[5] 또한 『東醫生理學講義』에서는 飮食物(水穀)이 胃腸(脾胃)에서 消化되어 그 中에서 精微로운 部分(精)이 吸收되어 생기는 것을 營이라 하였는데[6],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素問·痺論』: 榮은 水穀의 精氣이니 五藏을 調和하며 六府에 灑陳하여야 비로소 脈에 들어갈 수 있다.(榮者 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藏 灑陳於六府 乃能入於脈)[7]

『靈樞·營衛生會』: 사람은 水穀에서 氣를 받으니 水穀이 胃에 들어와 肺에 傳하여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받는다. 淸한 것은 營氣이고, 濁한 것은 衛氣이니, 營氣는 脈中에 있고, 衛氣는 脈外에 있다.(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8]

『靈樞·營衛生會』: 中焦도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9]

『靈樞·營氣』: 營氣가 생성되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水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水穀이 胃로 들어와서 소화되면 肺로 전해져서 인체내부에 흘러넘치고 밖으로 펼쳐지게 된다.(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于胃 乃傳之肺 流溢于中 布散于外)[10]

『靈樞·五味』: 水穀이 처음 胃로 들어가면 그 精微로운 물질은 먼저 胃에서 나와 兩焦로 가 五藏을 灌漑하고 別出하여 營衛 두 길로 運行한다.(穀始入于胃 其精微者 先出于胃 之兩焦 以漑五藏 別出 兩行營衛之道)[11]

위 몇몇 내용을 통해 음식물을 받아들여 소화시키면 營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營의 由來가 水穀임을 알 수 있다.

血의 由來에 대한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生理學』에서는 營氣와 津液은 血液化生의 주요한 물질의 基礎가 되고, 營氣와 津液 모두 脾胃가 飮食物을 運化하여 生成한 水穀精微에서 내원한 것이라 하였으며[12], 『東醫生理學講義』에서는 血은 脾胃의 運化에 의하여 生成된 營養物(水穀의 精微)이 肺에서 吸入한 靑氣와 脈管內에서 合하여 營氣의 作用을 받아서 生成된다고 하였는데[13],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靈樞 · 營衛生會』: 中焦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14]

『靈樞·決氣』: 中焦가 穀氣를 받아 汁을 취하여 變化시켜 赤色이 되니 이것이 血이다.(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15]

『靈樞 · 邪客』: 營氣는 그 津液이 泌別되어 脈으로 注入되어 血로 變化하여 四末을 營養하고 안으로 五臟六腑에 注入되어 刻數에 相應한다.(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16]

『靈樞 · 癰疽』 : 中焦로 이슬과 같은 氣가 나가 위로 谿와 谷으로 흘러가 孫脈에 스며들며 津液이 調和되어 변하여 붉게 되는 것이 血液이다.(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17]

이상 몇몇 내용을 통해 津液 또는 汁이라 표현한 물질에서 化生하여 붉게 된 것을 血이라 하는데, 이것을 생리학 교재에서는 飮食精微 또는 脾胃의 運化에 의하여 生成된 營養物에서 만들어진다 하였으니, 血의 由來는 營과는 달리 水穀之氣나 水穀精微, 또는 津液이나 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津液이나 汁은 水穀에서 비롯된 津液이나 汁 즉, 水穀之氣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考察】

이처럼 營과 血은 모두 飮食物을 섭취하여 中焦에서 소화시키는 것으로부터 始作되는 것은 동일한데, 營은 水穀을 소화시키면서 곧장 생성되고, 血은 水穀을 소화시킨 水穀之氣나 水穀精微로부터 생성되는 차이가 있다.

2. 營과 血의 生成場所

다음으로는 營이나 血의 生成場所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靈樞·營衛生會』: 中焦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1) 차윤근, 전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韓醫學硏究所論文集 3卷. 1994.
2) 하태현, 홍무창,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1(2). 1996
3) 嚴東明, 朴贊國. 營血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9卷. 1995.
4)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授 編著. 東醫生理學. 파주. 集文堂. 2008. p.143.
5) 全國韓醫科大學·韓醫學專門大學院, 經絡經穴學 敎材編纂委員會. 大學經絡經穴學叢論. 원주. 의방출판사. 2009. p.8.
6) 柳道坤 編著. 東醫生理學講義. 익산. 원광사. 1999. p.337.
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63.
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9.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20.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3.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46.
12)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授 編著. 東醫生理學. 파주. 集文堂. 2008. p.150.
13) 柳道坤 編著. 東醫生理學講義. 익산. 원광사. 1999. p.382.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20.
1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68.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98.
1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45.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18]

이로 볼 때 營의 生成場所는 中焦임을 알 수 있다.

血의 生成場所에 대한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營衛生會』: 中焦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19]

『靈樞・癰疽』 : 中焦로 이슬과 같은 氣가 나가 위로 谿와 谷으로 흘러가 孫脈에 스며들며 津液이 調和되어 변하여 붉게 되는 것이 血液이다.(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20]

위 내용을 보면 血이 生成되는 場所는 肺脈이나 孫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考察】

이처럼 營은 中焦에서 생성되는데 血은 肺脈이나 孫脈에서 生成된다. 앞서 언급한 『靈樞·決氣』의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이라는 문장이 血의 生成場所가 中焦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붉은 색으로 變化하는 장소가 中焦임을 밝히는 문장으로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血의 生成場所를 中焦라 하기는 어렵다.

3. 營과 血의 循環 및 경로

營의 循環 및 경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學經絡經穴學叢論』에서는 營氣의 循環은 대순환과 소순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순환은 十二經脈의 循環이며, 소순환은 任督脈의 循環이다. …… 全身을 上에서 下로, 下에서 上으로, 陽에서 陰으로, 陰에서 陽으로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運行하여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21], 이렇게 설명하는 문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靈樞·動腧』: 營衛의 運行은 上下로 貫通하여 고리와 같이 끝이 없다.(營衛之行也 上下相貫 如環之無端)[22]

『靈樞·營衛生會』: 淸한 것은 營氣이고, 濁한 것은 衛氣이니, 營氣는 脈中에 있고, 衛氣는 脈外에 있다.(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23]

『靈樞·衛氣』: 精氣로서 經脈을 운행하는 것은 營氣가 된다.(其精氣之行于經者 爲營氣)[24]

『靈樞・營氣』: 營氣가 생성되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水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水穀이 胃로 들어와서 소화되면 肺로 전해져서 인체내부에 흘러 넘치고 밖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중 가장 精微로운 것은 經隧로 흘러서 항상 경영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니, 이것이 인체에서의 天地의 綱紀가 된다.(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傳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25]

『靈樞・脈度』: 手六陽經은 手部에서 頭部까지의 길이가 5尺이니 5×6은 3丈이고, 手六陰經은 手部에서 胸中까지의 길이가 3尺5寸이니 3×6은 1丈8尺과 5×6은 3尺으로 합하여 2丈1尺이고, 足六陽經은 足部에서 頭部까지 길이가 8尺이니 6×8은 4장 8尺이요, 足六陰經은 足에서 胸中까지 길이가 6尺5寸이니 6×6은 3丈6尺과 5×6은 3尺으로 合이 3丈9尺이요, 蹻脈은 足部에서 目部까지 7尺5寸이니 2×7하면 1丈4尺이며 2×5하면 1尺으로 合하면 1丈5尺이요. 督脈 任脈은 各各 4尺5寸이니 2×4하면 8尺과 2×5하면 1尺으로 合이 9尺이라. 모두 합치면 16丈2尺이니 이는 氣의 大經隧이다.(手之六陽 從手至頭 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 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 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 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26]

『靈樞·營衛生會』: 中焦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27]

『靈樞·邪客』: 營氣는 그 津液이 泌別되어 脈으로 注入되어 血로 變化하여 四末을 營養하고 안으로 五臟六腑에 注入되어 刻數에 相應한다.(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28]

『靈樞·癰疽』: 榮衛가 온 몸을 流行하며 그치지 않는 것은 위로 星宿에 相應하고 아래로는 經數에 相應한다.(夫血脈營衛 周流不休 上應星宿 下應經數)[29]

이로 볼 때 營이 운행하는 통로는 經隧[30]이며 '如環無端'이

1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20.
1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45.
2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45.
21) 全國韓醫科大學·韓醫學專門大學院, 經絡經穴學 敎材編纂委員會. 大學經絡經穴學叢論. 원주. 의방출판사. 2009. p.9.
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67.
2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9.
2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36.
2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3.
2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5.
2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20.
2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98.
2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45.

라는 표현과 같이 二十八脈을 끊임없이 循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血의 循環 및 경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生理學』에서는 血은 脈管內를 循行한다 하였으며[31], 『東醫生理學講義』에서는 血液은 脈管內를 循行하는데 脈管은 全身 各處에 分包되어 全身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運行한다고 하였는데[32], 『內經』에서는 血이 脈管內를 운행한다는 표현이 없다. 血이 脈管內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營과 血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다. 血의 運行과 관련된 문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繆刺論』: 血脈을 刺鍼하여 出血시키고, 足跗上에 있는 動脈에 刺鍼한다.(血脈出血 刺足跗上動脈)[33]

『靈樞·五味論』: 血脈은 中焦의 도로가 되는 까닭에 鹹味를 섭취하면 血로 走行하게 된다.(血脈者 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34]

이로 보면 血이 운행하는 經路는 血脈임을 알 수 있다. 血脈이 經隧나 經脈과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리학교재에서는 血도 循環한다고 하였으나 『內經』에서는 血의 循環에 대한 言及 또한 없다. 血의 循環 또한 대부분 營과 血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다.

【考察】

『東醫生理學』이나 『東醫生理學講義』에서 血의 경로로 상정한 脈管을 營의 經路인 經隧로 이해한다면, 營의 경로인 經隧와 一致하여 營과 血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생리학 교재에서 말한 脈管을 經隧로 이해할 수 없으며, 血脈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營은 經隧라는 경로를 통해 全身을 循環하는데, 血은 血脈이라는 경로를 통해 운행하지만 循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4. 營과 血을 主宰하는 藏

營을 主宰하는 藏에 대한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經脈別論』: 飮이 胃로 들어가면 精氣가 흘러넘쳐 위로 脾에 보내지고 脾氣가 精을 散布하여 위로 肺에 돌아간다.(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35]

『靈樞·營氣』: 水穀이 胃로 들어와서 소화되면 (脾에 의해서) 肺로 전해져서 인체내부에 흘러 넘치고 밖으로 펼쳐지게 된다.(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于胃 乃傳之肺 流溢于中 布散于外)[36]

이로 볼 때 營을 主宰하는 藏은 脾임을 알 수 있다.

血을 主宰하는 藏에 대한 說明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平人氣象論』: 心은 血脈의 氣를 간직한다.(心藏血脈之氣也)[37]

『素問·痿論』: 心은 血脈을 주재한다.(心主身之血脈)[38]

이로 볼 때 血을 主宰하는 藏은 心임을 알 수 있다.

【考察】

營을 主宰하는 藏은 脾이고, 血을 主宰하는 藏은 心이다. 心의 機能에 있어서 心生血이 있어 그 意味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脾의 機能 中 脾統血의 意味를 살피면 脾가 營을 主宰하는 사실과 배치된다. 하지만 脾統血은 脈內로 血을 統攝하는 것이므로 脾統血 血은 營의 意味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 營과 血의 色

周知하듯 血은 赤色을 띠지만 營이 어떤 色을 가진다는 說明은 찾아볼 수 없다. 血에 대한 설명으로는,

『靈樞·決氣』: 中焦가 穀氣를 받아 陰汁을 취하여 變化시켜 赤色이 되니 이것이 血이다.(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39]

『靈樞·癰疽』: 中焦로 이슬과 같은 氣가 나가 위로 谿와 谷으로 흘러가 孫脈에 스며들며 津液이 調和되어 변하여 붉게 되는 것이 血液이다.(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40]

고 하여 赤色을 띠는 것을 血이라 하였다.

고 찰

1. 營과 血의 특성

세밀하게 고찰하여 구분하지 않으면 '營'과 '血'이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사용하기 쉬운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本文에서 營과 血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아 그 槪念을 把握하고자 하였다. 또한 營과 血의 共通性을 살피면 기존에 사용하였던 '營'과 '血'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는 '營血'이라는 용어에 대한 槪念도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각각의 特性을 바탕으로 하여 營과 血에 대한 共通的인 說明은 다음과 같다.

『素問·五藏生成』: 肝이 血液을 공급받아야만 볼 수 있고 다리가 血液을 공급받아야만 걸을 수 있고 掌이 血液을 供給 받아야만 잡을 수 있고 指가 血液을 供給받아야만 감아쥘 수 있다.(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41]

『靈樞·營衛生會』: 中焦도 또한 胃와 나란히 上焦의 뒤에서 나오니 中焦가 氣를 받는 바는 반드시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薰蒸하여 精微를 化生하여 위로 肺脈에 보내주면 變하여 血이 되어 이로써 身體를 奉養하니 이보다 貴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홀로 經隧를 運行하니 營氣라고 한다.(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30) 經脈이라 하지 않고 『靈樞·營衛生會』에 근거하여 經隧라 하였는데, 經隧와 經脈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31)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授 編著. 東醫生理學. 파주. 集文堂. 2008. p.152.
32) 柳道坤 編著. 東醫生理學講義. 익산. 원광사. 1999. p.385.
3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25.
3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70.
3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86.
3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13.
3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65.
3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66.
3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68.
4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45.
4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39.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42]

『靈樞·邪客』: 營氣는 그 津液이 泌別되어 脈으로 注入되어 血로 變化하여 四末을 營養하고 안으로 五臟六腑에 注入되어 刻數(시간)에 相應한다.(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43]

『靈樞·本神』: 사람의 血, 氣, 精, 神은 生命을 奉養하여 性命을 穩全하게하여 주는 것이고, …… 이러므로 血氣가 調和를 이루면 經脈으로 잘 流行하여 身體의 表裏 內外 陰陽으로 잘 循環하고, 筋骨이 勁强하게 되고, 關節의 운동이 원활하게 된다.(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于性命者也 …… 是故血和則經脈流行 營覆陰陽 筋骨勁强 關節淸利矣)[44]

『素問·調經論』: 寒濕이 人體에 침입할 때에 皮膚가 늘어지고 肌肉이 단단하고 팽팽하여 營血은 엉기고 衛氣가 바깥으로 나가므로 虛라 한다.(寒濕之中人也 皮膚不收 肌肉堅緊 榮血泣 衛氣去 故曰虛)[45]

이로 볼 때 營과 血은 機能的으로 全身을 營養하는데 쓰이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本文을 바탕으로 營과 血의 特性과 營과 血의 共通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營과 血 各各의 固有한 特性

營은 水穀으로부터 生成되며 生成場所는 中焦이다. 그리고 營은 經隧를 통해 循環한다. 營을 主宰하는 藏은 脾이며, 營에 대한 色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血은 營과는 달리 水穀이 아닌 水穀之氣 또는 水穀精微에서 生成된다. 血의 生成場所로 언급되는 곳은 肺脈 또는 孫脈이 있다. 血은 血脈을 통해 이동하는데 循環에 대한 언급이 없다. 血을 主宰하는 藏은 心이며, 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 赤色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營이란 中焦에서 水穀으로부터 生成되며, 脾의 主宰下에 經隧를 통해 循環하는 것이다. 血이란 水穀之氣에서 生成되며, 붉은 색을 띠는 것으로, 心臟의 主宰下에 血脈으로 통하는 것이다.

2) 營과 血의 共通性

營과 血은 모두 全身을 運行하며 人體의 生命活動을 維持하도록 營養하는데 쓰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營血의 개념

營血은 '榮血'이라는 용어로 『黃帝內經』에 단 한 번 나온다.

『素問·調經論』: 寒濕이 人體에 침입할 때에 皮膚가 늘어지고 肌肉이 단단하고 팽팽하여 營血은 엉기고 衛氣가 바깥으로 나가므로 虛라 한다.(寒濕之中人也 皮膚不收 肌肉堅緊 榮血泣 衛氣去 故曰虛)[46]

이 내용을 통해서는 營血의 槪念을 把握하기 어렵다. 營血이라 하면 營과 血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營의 특징인 經隧를 통해 全身을 循環하는 性質과, 血의 특징인 붉은 색을 가지는 성질을 모두 갖춘 개념을 포함해야 營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營血의 영문 표현을 'nutrient and blood'라 하였는데[47], 이는 'a collective term for nutrient and blood'라는 설명 그대로 nutrient(營)라는 단어와 blood(血)라는 단어를 붙여 놓은 용어로, 營血의 개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循環하는 특징까지 포함하면 營血이라는 용어는 'nutrient blood' 또는 'circulating blood'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Characteristics and common point of nutrient and blood

		營	血
特性	유래	水穀	穀氣之汁
	생성장소	中焦	
	경로	經隧	血管
	主宰臟	脾	心
	循環	O	X
	色	X	赤色
共通性		全身을 營養하는 物質	

표 2. Conception of nutrient, blood and nutrient blood

	槪念
營	中焦에서 水穀으로부터 生成되며, 脾의 主宰下에 經隧를 통해 循環하는 것
血	붉은 색으로 水穀之氣에서 生成되며, 心의 主宰下에 血脈을 흐르는 것
營血	水穀 또는 水穀精微에서 生成되며 脾와 心의 主宰하에 經隧 또는 血脈을 통해 循環하는 붉은색으로 全身을 營養하는 것을 말하여, 營의 특징과 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

결 론

이상과 같이 營과 血의 특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營과 血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들과 구분되는 營血이라는 용어도 다음과 같이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營이라 하면 中焦에서 水穀으로부터 生成되며, 脾의 主宰下에 經隧를 통해 循環하는 것을 말한다. 血이라 하면 水穀之氣에서 生成되며,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心의 主宰下에 血脈을 통해 흐르는 것을 말한다. 營血이라 하면 水穀 또는 水穀精微에서 生成되며 脾와 心의 主宰하에 經隧 또는 血脈을 통해 循環하는 붉은색으로 全身을 營養하는 것을 말하여, 營의 특징과 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9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4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120.
4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98.
4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68.
4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18.
4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218.
4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07. p. 21.

참고문헌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3. 차윤근, 전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韓醫學硏究所論文集 3卷, 1994.
4. 全國韓醫科大學 生理學敎授 編著. 東醫生理學, 파주, 集文堂, 2008.
5. 全國韓醫科大學·韓醫學專門大學院, 經絡經穴學 敎材編纂委員會. 大學經絡經穴學叢論. 원주, 의방출판사, 2009.
6. 柳道坤 編著. 東醫生理學講義. 익산, 원광사, 1999.
7. 하태현, 홍무창, 김완희. 營氣와 衛氣의 循環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1(2), 1996.
8. 嚴東明, 朴贊國. 營血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9卷., 1995.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07.